

경희 반세기 Y-1, UI 시대를 연다

우리학교 정체성 확립위한 시각 이미지 작업 진행중 학내 구성원 지속적 관심 및 여론 형성 과제로 남아

개혁의지 담은 변화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색깔을 한껏 활용한 플래카드, 등용문부터 본관까지 펼쳐지는 자주빛 휘장, 각종 홍보 책자에 등장하는 사자 캐릭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학교는 눈에 보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변화속에는 뭔가 모를 통일감이 숨어있다. 무엇일까? UI 작업이 바로 해답이다.

UI(University Identity) 작업이란 흔히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CI(Company Identity) 작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대학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정착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희대학 하면 '아, 그 심벌!' 하고 일반 사람들이 느끼게끔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우리 학교가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은 조정원 총장의 취임과 때를 같이 한다.

대학간의 경쟁이 가속화 되다보니 대학에도 홍보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97년 10월 구성된 홍보위원회와 대외협력실의 대대적 개편도 이러한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교표조차도 규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홍보하는데 있어 이미지 확립만큼 큰 과제는 없었다.

이에 96년 12월부터 최병식(미술)교수를 주축으로 시작한 이미지 작업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서서히 성과물들을 선보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UI 작업이라는 것이 워낙 방대한 것이다 보니 현재의 성과물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고정 이미지 구축 작업

UI 작업이 완성될 경우, 교표는 물론이고 심벌마크, 교기, 안내표지판, 각종 서식, 계시판, 초청장, 표창장, 명패, 부서싸인 등 모든 시설물의 디자인이 정해져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 외에 UI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



▲외국대학들은 수십년 전부터 이미지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개발된 이미지를 상품에 적용해 구성원들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고 있는 또다른 사업은 상품개발 기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미지 상품 개발이다.

이미지 상품에 대한 기본 디자인은 현재 완성된 상태이며 실용적 적용을 통한 여론수렴 단계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디자인 작업을 맡은 최병식 교수가 이번 이미지 작업을 통해 담아내고자 한 것은 크게 네가지이다.

첫째, 예술적 미감과 우리학교만의 정체성을 적절히 조합하고 둘째, 사회적 공익성을 띠도록 하고 셋째, 생활속에 보편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

고 넷째, 용도개발을 다양화한다는 점이다.

이미지 상품의 판매는 곧 우리학교의 발전으로 연결된다.

이미지 상품 개발, 판매

우리학교의 이미지상품 생산 및 관리에 관여하게 될 기업인 'University'사는 앞으로 디자인된 상품을 제작, 서울캠퍼스의 복지회관과 수원캠퍼스의 학생회관에서 판매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학교는 매장임대료 및 로고에 대한 로열티를 수익금으로 거둬들이게 된다.

'University'사의 김형국 본부장은 "경희대의 경우 지난 96년 2월, 본사 최초로 계약을 맺어 남다른 애착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경희대의 스포츠 부문을 특별히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UI 작업은 단순히 한 개인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시키는 과정부터 성과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다양한 주체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UI 작업이다.

또한 시각적 요소들을 배출해내는 작업이 UI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제작상 많은 시설과 인력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기획과 김준현씨는 "나라 전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기자재를 도입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무리이며 기존에 학내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자재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UI작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투자를 고려할 것"을 밝혔다.

구성원 여론 수렴 중요

그러나 뉘나뉘나해도 이번 작업의 주요 과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서울캠퍼스 김병목(법학과 교수) 기획조정실장은 "UI 작업은 무수히 많은 보완과 수정을 필요로 한다"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또한 이 작업의 일부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측이 아무리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작업을 활성화 한다 해도 그에 대한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최상의 작업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CI 작업의 경우 제품과 서비스 경쟁에서 느낀 한계 극복 노력이 작업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들 기업에 한계를 느끼도록 하고 새로운 작업의 시작을 유도한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었다.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기업들은 작업을 보완하고 더 나은 이미지로 다가서기에 주력을 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학교가 계속 선보이게 될 UI 작업의 각종 성과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다.

우리학교가 길게는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될 각종 이미지에 대해 우리학교만의 정서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작업에 학내구성원 전체가 동참할 때 성공적인 작업 완료를 기대할 수 있다. (강남이 기자)

이미지 지키기

교시탐

지난 2월 20일 우리 학교 수원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웅장한 도서관과 사색의 광장이 때 여러 번 등장한 드라마의 제목은 '지하철 치환에 관한 보고서'. 제목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이 드라마는 성추행을 주제로 삼고 있었다.

문제는 이 드라마에서 본관 전경과 학교 로고 등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발생했다. 물론 드라마는 가상의 이야기이므로 성추행과 관련한 드라마 내용이 우리학교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과의 교수가 학생에게 성적인 접근을 하는 내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학교 로고나 학교명이 화면에 공개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방송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그 드라마로 인해 입을 지 모를 어떤 불편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다.

물론 드라마를 제작한 담당 PD는 사전에 드라마 내용을 학교측에 보인 바가 없음을 인정했다. 우리 학교 홍보실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벌인 아닐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이 괜히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학교가 대외 홍보를 생각한 나머지 드라마 그 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너무 호의적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 때문이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학교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세희 기자)

지면안내

- 3 시사
- 5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망
- 5 사회
- 7 경제시리즈 1 - 경제위기 끝나지 않았다
- 7 학술
- 7 가상대학 출현의 당위성과 의미
- 8 문화
- 8 새정부 문화정책
- 10~12 Free Style
- 10~12 '백수'

수강신청, 이제 알고 한다

서울-천리안, 수원-인터넷 통한 강의계획 조회 가능

이번 학기부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강의계획서를 볼 수가 있다.

지난 겨울 방학 중 각 강좌의 담당교수들이 직접 입력해 놓은 강의계획서를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교무처가 기획한 이 시스템은 그동안 교과목 명과 담당교수만을 보고 수강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현재 최선상의 문제로 이번 학기의 경우 천리안을 통한 접속 및 조회만이 가능하다.

강의계획서를 조회하고자 하는 서울캠퍼스 학생은 천리안에서 go khus를

입력하면 곧바로 우리학교 온라인 통신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www.kyunghee.ac.kr)를 통한 조회 및 천리안을 통한 조회가 모두 가능하다.

한편 학내에서 천리안에 접속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telnet chollian seoul', 수원캠퍼스의 경우 'telnet chollian suwon'을 입력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천리안에 접속하고자 하는 학생은 양캠퍼스 모두 telnet chollian.net망을 통하여 된다.

이때 사용하는 PC는 반드시 교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어야 하며, PC를 DOS 모드로 사용할 경우 'telnet'을 'htr'으로 변경, 입력해야 한다.

강의계획서를 통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강의목적, 교재, 내용, 과제, 평가내용 및 방법 등이 있다. (강남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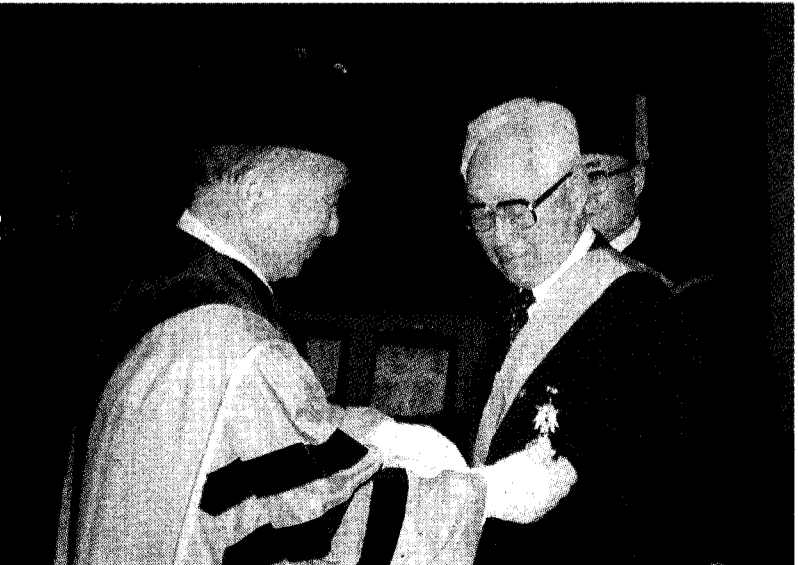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수원, 학생카드 발급

98학년도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서울캠퍼스는 오늘부터 7일까지, 수원캠퍼스는 4일부터 5일까지로 확정되었다.

정정기간동안 각 단계 전산설이나 천리안 접속으로 폐강된 강의나 잘못 신청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하고자 하는 수업도 전산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재수강을 할 학생은 수강신청 및 정정을 마치고 학적과에 비치된 재수강 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수강으로 처리되어 취득학점은 무효가 된다.

경희 space



평북 한표욱 교수 발전기금 1억 기부

평화복지대학원 한표욱(정치)교수는 지난달 27일 평화복지대학원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회사했다.

한편 조정원 총장과 조영식 학원장은 한 교수에게 감사의 뜻으로 대학장을 수여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미시간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한 교수는 1949년부터 1981년까지 오스트리아, 영국, 유엔 대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84년부터 평화복지대학원 평화안보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사령

- 任 취재부장 : 강남이(문리대 물리 3)
- 任 정기자 : 고세희(국문 2)
- 문화부장 : 김동혁(생물 3)
- 김수란(이학 2)
- 시사부장 : 최용섭(정경대 경영 3)
- 정수운(이학 2)
- 사회1부장 : 최현일(경제 3)
- 김현중(생약 2)
- 사회2부장 : 김용운(유전공 3)
- 류지은(사회 2)
- 지은정(사회 2)
- 김윤택(조형 2)

